

2026년 설날 가정예배

즐기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진교회

B U S A N J I N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담임목사 신 충 우 Senior Pastor Rev. Shin Chung-woo

48724 부산광역시 동구 정공단로 17번길 16(좌천동)

TEL 051-647-2452-3 FAX 051-647-2454 www.busanjin.or.kr

설날 가정예배

목 도 _____ 다 같 이
신앙고백 _____ 사도신경 _____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_____ 559장 _____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기 도 _____ 말 은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배풀어 주신 은혜를 잇고 죄에 매여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되게 하셔서 매일 기쁨과 감사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 마태복음 7:24-27(새번역) —— 말 은 이

²⁴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²⁵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²⁶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²⁷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말 씬 —— 말 은 이

우리가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집을 짓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리석다고 책망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갈피를 못잡고,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그가 슬기롭다고 칭찬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갑작스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마음 한 가운데 자리잡아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묻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의 칭찬 받는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들이닥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따라 행하는 슬기로운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 송 ————— 204장 ————— 다 같 이

1.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2.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칠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3.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후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기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